

보급 형태로 살펴 본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층 문제 試論

최재호*

【 차례 】

- I. 서론
- II. '여성영웅소설'의 보급 현황
- III. 상업세력의 개입 여부에 따른 보급 과정 구분
- IV. 유통 및 전파로 살펴 본 작자와 독자층 推論
- V. 결론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당시 사회상과 관련지어 '여성영웅소설'의 작자 및 독자 문제를 언급하였던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여성영웅소설'의 보급과정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층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향유층의 범위를 작자, 독자에 국한하지 않고, 보급자까지로 넓혀, 보급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의 작자 및 독자 문제를 재접근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영웅소설'은 상업세력에 의한 유통뿐 아니라, 여성에 의한 전파에 의해서도 보급이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둘째,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은 초기에는 남성과 여성 독자층이 같이 존재했으리라 추정되며, 후대로 갈수록 여성 독자층만이 남았으리라 추정된다.

* 경북대학교 박사 과정.

셋째, '여성영웅소설'의 작자는 기존 영웅소설의 전문적인 남성 작가뿐 아니라 비전문적인 여성 작가도 존재했으리라 추정된다.

넷째, '여성영웅소설'은 상업세력에 의해 유통되다가 여성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여성에 의해 전파되다가 상업세력에 의해 유통되기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층에 대하여 학계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여성영웅소설, 보급, 유통, 전파, 작가, 독자, 보급자

I. 서론

'여성영웅소설'이란 영웅소설 중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하나의 作品群을 이르는 용어이다.

영웅소설에 대한 기존연구는 자료의 방대한 양에 비례하여,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이후 질적·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¹⁾ 초기 연구자들

-
- 1) 이재수, 「한국소설 발달에 있어서 중국소설의 영향」, 〈경북대 논문집〉 1집, 1956.
정규복, 「한국군담소설류에 끼친 삼국지연의의 영향 서설」, 〈국문학〉 4호, 고려대, 1960.
장덕순, 「병자호란을 전후한 전쟁소설」,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화사적 전개」, 〈동아문화〉 10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 구조의 시대적 배경」,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서대석, 「군담소설의 출현동인과 반성」, 고전문학연구회, 1971.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대출판부, 1985.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3.
민공기, 「영웅소설의 의미체계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5.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6.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방법론」,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93.
김현양, 「조선조 후기의 군담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94.

은 '여성영웅소설'을 하나의 독립된 작품군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성과는 미진한 편이었다.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²⁾ 개별 작품을 분석하여 비슷한 형태끼리 묶는 유형론적 접근이 시작되고 나서야³⁾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경향은 다시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⁴⁾

'여성영웅소설'의 유형분류에 있어 주목할 만한 연구업적은 정명기의 『여호결계 소설의 형성과정』이다.⁵⁾ 정명기는 이 논문에서 여호결계 소설의 존재론적 근거를 영웅소설과 근원설화로 규정했으며, 과거급제의 先·後 모티프와 출정 시 직위의 高·下 모티프를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는데, 뒤이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여성영웅소설'의 유형 분류 작업은 계속해서 시도되었다.⁶⁾

-
- 2) 1970년대까지의 '여성영웅소설'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는 <박씨전>, <정수정전>에 대한 연구 정도로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 3)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을 분류를 최초로 시도한 연구는 성현경의 『여결소설과 설인귀전』(국어국문학 62~63호, 국어국문학회, 1973)이며, 군담소설과 여결소설은 <설인귀전> 시리즈의 소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한 것은 <황운전>, <정수정전>, <홍계월전>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유형 분류는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 4) 유형 분류에 의한 연구가 시도된 1980년대 이후,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는 <박씨전>, <옥주호연>, <이봉빈전>, <홍계월전>, <정수정전>, <이학사전>, <방한립전>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 5) 정명기, 『여호결계 소설의 형성과정』,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0.
 - 6) 양인실, 『한국 고대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건국대 논문집 11집, 1980.
 여세주, 『여장군 등장 of 고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1.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6.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1988.
 임병희, 『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양상』,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9.
 이은경, 『후기 여성영웅소설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1.
 박상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1.
 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 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 박사학위 논문, 2004.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경향』, 대구대 박사학위 논문, 2005.

정명기 이후 연구자들의 공통점은 작품의 내용 및 구조를 분석하는 내적 연구를 통한 유형 분류에 대한 시도와 함께, 당시 시대·사회상황이 ‘여성영웅소설’의 출현 動因임을 강조하는 작품 외적 연구를 병행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 작품연구를 통해 주로 작품의 내적 연구에 머물던 ‘여성영웅소설’의 연구방법을 다각화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들 연구자들은 특히 사회·윤리주의 비평방법을 동원하여 작품의 외적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문학과 사회제도 또는 문학과 시대상황과의 관련성을 다루어 단순히 ‘여성영웅소설’의 출현 동인을 언급하거나,⁷⁾ 사회배경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와 작자를 유추하는 문제,⁸⁾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식’의 성장⁹⁾을 주로 다루는 편향성을 보였다.

-
- 7) 여세주, 『여장군 등장의 고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1.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6.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1988.
 전학용, 『여성영웅소설의 형성동인 및 서사의 특성』, 경남대 석사, 1990.
 강희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 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 박사학위 논문, 2004.
- 8)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에 대한 문제는 여성 양반층을 주된 독자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 반적인 통념이었으므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류준경만이 ‘여성영웅소설’의 출현을 여성 독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웅소설의 내용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독자의 요구라고 보는 견해를 제시했다.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 연구』 12집, 고소설학회, 2001.
 ‘여성영웅소설’의 작자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초기의 연구자들은 여성영웅소설을 영웅소설과 구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연구자인 서대석, 조동일, 임치균 등은 영웅소설의 작자를 몰락양반으로 보았고, 주명희는 환로(宦路)가 막힌 중인이나 서열(庶孽)층으로, 민공기는 상업을 매개로 하는 상인층을 영웅소설(여성영웅소설)의 작자로 생각하였다. 반면에 여성영웅소설을 영웅소설과 구분하기 시작한 후기 연구자인 민찬, 차옥덕, 강희수들은 여성영웅소설의 작자가 여성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9) 차옥덕, 『방한림전의 여성주의적 시각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광정식,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성격과 한계』, 『국어국문학』 제126권, 국어국문학회, 2000.
 광정식, 『정수정전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 『어문학』 제72호, 한국어문학회, 2001.

'여성영웅소설'이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에 비해 지금까지 양적으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외적 연구의 경우, 기존 논의를 되풀이하거나 또는 기존 논의에 대한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론만이 습관적으로 제기되고만 있을 뿐 새로운 연구 영역의 확대에 대한 의지는 소극적이었다.

특히 외적 연구방법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의 보급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하였다.¹⁰⁾ 최근 들어 연구의 범위 선정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영남지역의 필사본 소설의 강독 및 수용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¹¹⁾

이러한 최근 연구경향에 힘입어 본 연구의 목적을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당시 사회상과 관련지어 '여성영웅소설'의 작자 및 독자 문제를 언급하였던 기존의 연구와는 방법을 달리하여, '여성영웅소설'의 보급 과정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층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소설사회학적 접근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소설의 향유층을 다룰 때, 작자와 독자의 문제로 국한하거나, 너무나 쉽게 작자와 독자를 단정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경향을 환기시켜, '여성영웅소설'의 작자와 독자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는 試論 차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유층의 범위를 작자, 독자 및 보급자로 넓히고 보급 형태를 통하여 '여성영웅소설'의 작자 및 독자 문제를 재접근 하고자 한다.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경향』, 대구대 박사학위 논문, 2005.

10) 보급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성영웅소설' 작품이 그리 많지 않은 데서 찾을 수도 있다.

11) 권미숙, 『20C 중반 농촌의 고전소설 강독과 수용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11집, 2006.

김재웅, 『대구·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전소설의 종류와 독자층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학 연구논총』 3집, 대구경북연구원, 2006.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古小說研究』 제 24집, 2007.

우선 II 장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보급현황을 제시하고자한다. III 장에서는 II 장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급자가 어떤 계층인지를 파악하고자한다. 즉 상업세력이 개입되었는지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보급의 형태를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상업세력의 개입 여부에 따른 각 작품군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III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여성영웅소설’의 작자 및 독자 문제를 다시 推論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II. ‘여성영웅소설’의 보급 현황

‘여성영웅소설’의 보급 현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해야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즉 ‘여성영웅소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와 ‘普及’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마지막으로 보급의 시기적 하한선을 어디까지로 두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먼저 ‘여성영웅소설’의 범위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여성영웅소설’을 연구범위로 삼은 경우, 연구자마다 연구범위로 설정한 작품의 수는 5~40개 정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정한 ‘여성영웅소설’의 범위로 선정한 작품의 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이 여러 이론들이 난립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곧 ‘여성영웅소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의不在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지에 맞추거나, 유형분류 편의성에 의해 작품을 취사선택하게 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의 범위 설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여성영웅소설'의 종수를 가장 많이 설정한 박상란의 연구¹²⁾에서 자료의 범위를 우선 차용한 다음,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맞게 자료의 범위를 아래에서 재설정 하도록 하겠다.¹³⁾

다음으로 '보급'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설정하고자 한다. '보급'은 사전적인 의미로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함'을 뜻하는데, 본 장에서도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여성영웅소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읽혀진 방법과 현황을 그대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사실 '보급'이라는 용어는 목적과 지향성을 내포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III

-
- 12) 박상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1. pp.8~9. 박상란은 <금향정기>, <백학전진>, <이대봉전>, <정수정전>, <황운전>, <김태자전>, <화옥쌍기>, <장국진전>, <이봉채전>, <이학사전>, <음양옥지환>, <사각전>, <음양삼태성>, <신유복전>, <유문성전>, <정비전>, <박씨전>, <남강월전>, <김희경전>, <오선기봉>, <옥루몽>, <하진양문록>, <권익중전>, <양주봉전>, <현씨양옹쌍린기>, <홍계월전>, <계상국전>, <석태룡전>, <설소저전>, <운향전>, <옥수기>, <방한립전>, <명주기봉>, <벽허담관제언록>, <위봉월전>, <홍연전>, <최익성전>, <재생연전>, <유씨삼대록>, <화정선행록>의 40편의 '여성영웅소설'의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박상란이 방대한 작품을 연구범위로 설정한 것은 자료상의 한계에서 오는 연구결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연구범위를 넓게 잡았다.
- 13) 연구 자료의 단순한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기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자료의 설정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개념과 범위가 정확히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논의들의 단순한 總수를 연구 자료로 설정하는 것은, 기존 논의에 혼란을 더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새로운 <뇌성전>과 같이 새로이 '여성영웅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이 발굴되거나, 연구되는 입장에서 기존 논의들의 단순한 총합은 더욱 의미가 없다. 또한 본 연구는 제명에서 밝혔듯이 試論의 성격이 크기에 연구 자료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연구자가 나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연구 자료를 설정한 하나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편이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새로운 연구 자료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성과 중에서 자료의 종수가 가장 많은 박상란의 연구를 차용하여 연구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 <현씨양옹쌍린기>, <하진양문록>, <유씨삼대록>, <권익중전>, <명주기봉>, <벽허담관제언록> 등을 장편의 대하소설로 보아 '여성영웅소설'로 보기도 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주인공의 활약상에 초점을 두어 기존 연구자(박상란)처럼 '여성영웅소설'로 분류하였다.

장에서 ‘보급’이라는 용어를 연구 목적에 따라 구분할 때 再論하기로 하겠다.

다음은 연구방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는 보급의 형태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급의 형태를 필사, 방각, 세책, 전문적인 傳奇叟 및 낭독자에 의한 낭독만으로 한정하고자한다. 여기에 여성독자들의 독서 경험 유무를 참고자료로 삼기로 하겠다.

연구방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필사의 경우는 필사가 된 작품의 종수가 몇 종인지를 살펴보고, 방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유무, 세책이 되었는지에 대한 유무, 낭독자에 의한 낭독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원주의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이라는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여성독자들의 독서 경험 유무¹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겠다.

보급의 방법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활자본은 제외가 되어 활자본의 종수는 기재하지 않고 활자본의 제명만을 기재하였다.¹⁵⁾ 활자본을 논외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활자본이 성행하던 시기는 근대의식을 담고 있는 신소설이 등장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활자본을 연구 자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신소설과 고전소설이 같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에서 활자본만 남아있는 ‘여성영웅소설’들은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의식과는 거리가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이다. 즉 근대의식으로 무장된 신소설에 가까운 새로운 형태의 ‘여성영웅소설’이

14) 이원주는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한국학논집 3집, 계명대 한국학 연구소, 1975)에서 1975년 기준 60세 이상의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고전소설 독서경향을 조사하였다. 지역이 경북북부지역이며, 조사시기가 고전소설이 유행하던 시기와는 거리가 있는 비교적 근래라는 점, 조사대상자가 19명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지만, 고전소설 여성독자들의 작품선호도를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는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한다. 이밖에도 최근 김재웅의 논의나, 권미숙의 논의도 같이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15) 활자본의 제명을 표기한 이유는 선행본들이 후대에도 계속 등장하는지 여부와 인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활자본의 명기한 이유는 III장에서 드러난다.

등장할 수 있기에¹⁶⁾ 활자본 이전에 유통 및 전파되었던 '여성영웅소설'만을 자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중에서 활자본으로 계승된 작품들의 경우에는 제명만을 언급하였다.

둘째, 활자본이 유통되던 시기는 대량으로 고전소설이 보급되었던 시기이므로, 발간된 종수만을 기준으로 인기 유무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¹⁷⁾ 즉 활자본을 자료의 범위로 상정하게 되면 본 연구의 목적에 오히려 혼선을 줄 수도 있기에 연구 자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¹⁸⁾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여성영웅소설'의 보급현황과악에 대한 시기의 하한선을 산정하면, 신소설 출현 시기와 세책본 미출현 시기, 활자본 등장 시기가 서로 겹치는 1915년까지로 정해진다.¹⁹⁾ 따라서 활자본만 남아있는 <화옥쌍기>, <남강월진>, <오선기봉>, <음양옥지환>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한

16) 활자본으로만 존재하는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연구 또한 당시 시대상황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의미가 있는 작업일 수 있다.

17) 활자본이 유행하던 당시는 출판사들이 본격적으로 고전소설의 보급을 전담하던 시기이다. 즉 종수를 가지고 인기 유무를 확인하기 보다는 출판량에 의해 인기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동종이라도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경우도 있어 계량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

18) 활자본의 경우 작자는 이미 밝혀졌으며, 독자를 찾고자 하는 연구도 의미가 없으며, 너무나도 상업적인 색채가 강하므로, 향유층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활자본이 나오기 전의 작품들로 한정하였다.

19) 본 연구에서는 작품들의 시기적 하한선을 1915년까지로 삼았으며, 또한 활자본을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원주를 위시한 여러 학자들의 1970년 이후에 진행된 고전소설 향유층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삼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원주, 김재웅, 권미숙의 논의는 주로 영남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적 한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가 필사본에 한정되었다는 점과 이 소설들의 필사시기가 대체로 1870년대~1930년대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최근까지 고전소설의 향유가 잘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18세기~20세기 초 당시의 전 지역의 고전소설 향유층들의 모습을 되짚어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즉 이원주, 김재웅, 권미숙의 논의가 본 연구에서 활용될 때 생기는 시기 및 지역상의 한계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더 크기에 이 연구성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다. 또한 〈김태자전〉, 〈옥루몽〉, 〈옥수기〉처럼 작자가 확인되었거나, 〈금향전기〉, 〈재생연전〉 같은 중국 유입작품은 연구목적과 배치되기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최초 연구 자료에서 연구목적에 맞게 자료의 범위를 재설정하면 총 31편의 작품이 연구의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고전소설의 작품 총수 858종 중 이본 총수가 50종 이상인 작품을 고르니 모두 36편이나 되었는데, 본 연구의 연구 자료로 확정된 31편의 작품 중 활자본을 포함하여 50종 이상의 이본을 가진 작품은 〈박씨전〉(137종, 11위), 〈이대봉전〉(88종, 18위), 〈백학선전〉(58종, 30위), 〈현씨양옹쌍랑기〉(58종, 30위), 〈정수정전〉(55종, 33위)이었다.²⁰⁾ 이러한 사실로 보면, ‘여성영웅소설’이 당시에 일정한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여성영웅소설’의 유통 및 전파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의 보급현황²¹⁾(괄호 안은 이본의 명칭)

작 품 명	필사	경관	완관	안성	세책	낭독	독자	활자본 제명	비 고
1. 이대봉전(대봉전, 봉황전)	57	△ ²²⁾	22	×	○	×	4	봉황대, 이대봉전	4개관본미정 한문필사 1
2. 양주봉전	11	×	×	×	○	×	×	양주봉전	이대봉전과 내 용 동일
3. 백학선전(유백호전)	45	14	×	×	×	×	×	백학선전	일어번역본 1종(활자)

20)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pp.119~127.

조동일이 연구 당시 참고한 자료는 조희웅의 『고전소설 이본목록』(1999)인데, 그 당시의 고전소설의 작품수를 858개로 보았으며, 이후, 『고전소설 연구보정』(2006년)에서 기존 연구를 보충하였는데, 작품수도 885종으로 늘어났으며, 이본이 새로이 발견되어 이본의 종수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21) ‘작품명’란은 필사본을 중심으로 동종이명(同種異名)의 명칭을 모두 기재하고, ‘세책’란은 1864년~1915년까지의 세책본의 유무를 기재하였다. 실제 세책되었거나, 책은 현존하지 않지만, 세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작품까지도 같이 범위에 넣었다. 세책본은 서울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좋은 자료라 할 수 있겠

작 품 명	필사	경관	완관	안성	세책	낭독	독자	활자본 제명	비 고
4. 정수정전	25	13	×	×	×	×	×	여자충효록, 여장군전, 여중호걸, 정수정전	
5. 옥주호연(삼옥삼주기)	8	12	×	×	×	×	1	삼옥삼주, 음양삼태성	
6. 흥연전	5	1	×	×	×	×	×	×	경관본 (1910)
7. 박씨전(명월부인전, 박부인전, 명월부인박씨전, 이시백전)	147	×	×	×	○	×→○	1	박씨부인전, 박씨전	
8. 현씨양옹쌍린기(현씨쌍린기, 현씨양옹기, 현씨양옹록, 현씨양옹쌍린기)	65	×	×	×	○	×	5	현씨양옹쌍린기	
9. 정비전(정각록, 정빈전, 정성모전, 정후비전, 정태비전, 정선매전, 정설매전)	34	×	×	×	○	×	×	정비전, 정현무전	세책본 (1914)
10. 황운전	30	×	×	×	○	×	×	황운전, 황장군전	한문필사본 1종 (1918)
11. 장국진전(모란정기, 장국증전)	25	×	×	×	○	×	×	모란정기, 장국진전	1902년 최초 세책
12. 하진양문록	19	×	×	×	○	×	2	하진양문록	
13. 유씨삼대록 (유씨세가족)	63	×	×	×	×	×	10	×	
14. 흥계월전 (계월전, 계월충효록, 흥평국전)	55	×	×	×	×	×	×	흥계월전	국문판각본 (1926)

다. '낭독' 란은 낭독자에 의해 불려 졌는지의 유무를, '독자'란은 이원주의 연구에서 독자로 참여했던 피조사자들이 해당 소설을 읽었는지에 대한 유무, '활자본 명칭'란은 활자본 유통 시 작품명을 기재하도록 하겠다.

〈음양삼태성〉은 활자본만 있으므로, 필사본과 방각본이 남아있는 동종소설인 〈옥주호연〉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종의 수는 고전소설 이본목록(1999)과 고전소설 연구보정(2006)에 나와 있는 이본의 수를 합하여 기재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작품마다 고유의 번호를 기재하였다.

22) △는 판본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Ⅲ. 상업세력의 개입 여부에 따른 보급 과정 구분

Ⅱ장에서 '여성영웅소설'의 보급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면 본 장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보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작품끼리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방각본이 있는 작품 중 안성본이 발견된 작품은 한 편도 없었다. 물론 안성본이 13종으로 종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경판본을 母本으로 하고 있기에 '여성영웅소설'이 한 편도 안성본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수치일 수 있다. 하지만 3개 판본 중 가장 상업적인 색채가 강한 안성본에서 '여성영웅소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업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영웅소설'이 인기가 있는 상품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곧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이 그리 두텁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²³⁾

또한 31편의 소설 모두 18세기에는 전문 낭독자에 의해 구연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20세기에 와서야 비전문 낭독자에 의해 〈박씨전〉과 〈신유복전〉 2편이 낭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⁴⁾ 즉 '여성영웅소설'들의 초기 독자들은 전문적인 講讀師, 講唱師, 講談師에 의존한 독자집단이기 보다는 스스로 소설을 읽기를 선호하는 독자집단이었음이 확인된다.

독자의 독서 유무에서는 1·5·8·12·13·17·26번 7편의 작품을

23) 안성본에 있는 영웅소설은 〈소대성전〉, 〈양풍운전〉, 〈조웅전〉, 〈홍길동전〉이다. 즉 영웅소설은 방각본 소설 중 인기가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성영웅소설'은 안성본에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상업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영웅소설'은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작품군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4) 18세기 전문 낭독자에 의해 독자들에게 낭독되어지던 작품은 〈심청전〉, 〈사씨남정기〉, 〈임경업전〉, 〈조웅전〉, 〈숙향전〉, 〈설인귀전〉, 〈소대성전〉, 〈창선감의록〉, 〈삼설기〉, 〈옥린몽〉, 〈춘향전〉 등이 있는데, 본 연구의 자료 중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다. 다만 권미숙의 『20C 중반 농촌의 고전소설 강독과 수용 양상』에서는 20세기 중반에 비전문 낭독자에 의하여 〈박씨전〉과 〈신유복전〉이 낭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원주는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에서 여성독자들이 ‘~傳’보다는 ‘~錄’이나 ‘~記’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²⁵⁾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영웅소설들이 ‘~傳’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여성독자들이 영웅소설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뜻밖에도 ‘~傳’이라는 제명을 삼은 1·7·26번 작품을 읽어보았다는 사실과 함께 ‘~傳’이라는 제명을 삼지 않은 5·8·12·13·17번 작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傳’이라는 제명 자체를 기피할 뿐이지, ‘여성영웅소설’을 멀리하거나 그 내용 자체를 기피한다는 것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위의 3가지 사실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은 그리 두텁지 못했으며, 전문적인 낭독자에 의해 ‘여성영웅소설’을 접하기보다는 주로 실제적인 독서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을 향유했다는 점, 그리고 여성들도 ‘여성영웅소설’을 기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아래에서는 위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번호 1번부터 12번까지는 방각본 및 세책본이 발견된 작품들이고, 13번부터 31번까지는 방각본 및 세책본이 발견되지 않은 작품들이다. 즉 1번부터 12번까지의 작품들은 방각본 및 세책본이 있는 작품들로 보급에 있어 상업세력이 개입된 징후가 뚜렷한 작품들이고, 13번부터 31번까지의 작품들은 보급에 있어 상업세력의 개입이 비교적 드러나지 않는 작품들이다. 여기서 보급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보급에 있어 상업세력의 개입 여부는 연구 진행상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상업세력이 개입이 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서로 다르게 命名하고자 한다.

25) 이원주, 앞의 논문, p.562.

먼저 보급에 있어 상업세력의 개입이 드러나는 경우 '流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유통'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營利性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대로 상업세력의 개입이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는 보급의 형태가 나타날 때는 '傳播'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전파'라는 용어는 '유통'이라는 용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²⁶⁾ 그러면 우선, 상업세력에 의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큰 작품들부터 먼저 분석하도록 하겠다. 1번부터 12번까지의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1번부터 12번까지의 작품은 이후에 거의 모두 활자본으로 다시 출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6번 작품인 〈홍연전〉만이 후대에 활자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재미있는 사실을 6번 작품의 경우, 조희웅의 『고전소설 이본목록』(1999년)에서는 경판본이 발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이창현의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²⁷⁾와 부만길의 『안성판·경판·완판 방각본의 비교연구』²⁸⁾에서는 6번 작품을 경판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6번 작품이 경판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방각본 및 세책본, 즉 활자본 이전에 유통된 작품들은 활자본 시대에 와서도 상업세력에 의해 활자본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번에서 12번 작품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은 1번 〈이대봉전〉이다. 〈이대봉전〉의 경우, 방각본 중 완판본이 남아있고, 세책본 또한 남아 있으며 경북 북부 지역의 여성독자들도 읽었다는 점, 2번 작품인 〈양주봉전〉과 내용

26) 유통 및 전파가 서로 혼재되어 유통과 전파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예도 있으나, 두 용어 사이의 구분이 명확할 경우는 두 용어 중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보급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겠다.

27)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28) 부만길, 『안성판·경판·완판 방각본의 비교 연구』, 출판문화학회보 《출판잡지연구》 제11권 제1호, 2003.

이 동일한 점²⁹⁾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당시 인기가 있었던 ‘여성영웅소설’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대봉전〉의 경우 경판본이 남아있지 않고 완판본만 남아있다는 점으로 인해 의아심이 있었는데, 판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미확인 판각본을 근래에 연구자들이 경판본으로 분류하고 있어³⁰⁾ 〈이대봉전〉을 전국적으로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한 인기가 있던 ‘여성영웅소설’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3번 〈백학선전〉은 상업세력의 주도에 의해 꾸준히 인기를 얻다가 뒤에 활자본으로 다시 간행되었는데, 일어번역본까지 발견된 점이 상당히 이채롭다.

4번 〈정수정전〉은 경판본 및 필사본이 유통 및 전파될 당시에는 제목이 1종이다가 활자본이 출판된 이후에 오히려 제목이 4종으로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활자본을 간행하던 여러 출판사들이 〈정수정전〉을 서로 경쟁적으로 출간한 것으로 〈정수정전〉 또한 후대까지 인기가 있었던 ‘여성영웅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7·8·12번 작품은 예전부터 꾸준히 여성독자들을 확보했던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방대한 양의 필사본 종수와 독자들이 독서를 하였다는 독서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번 작품인 〈박씨전〉의 경우는 필사본의 종수가 147종으로 밝혀져 다른 작품들에 비해 압도적이고 최근까지 낭독되었으므로 볼 때 ‘여성영웅소설’의 대표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박씨전〉의 경우는 짧은 분량과 인기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방각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필사본으로 인하여 굳이 방각본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작품은 세책에 의한 유통과 필사를 통한 전파가 같이 이루어진 인기작임을 추정할 수 있다.

29)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p.509.

30) 부만길, 앞의 논문, p.79.

앞의 표에는 학계의 여러 설을 다 인정하여, 경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으로 표시하여 가능성만을 기술하였다.

8번과 12번 작품의 경우 작품의 분량이 방대한 작품인데, 이러한 작품의 성격으로 인하여 상업세력에 의해 세책본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번 〈정비전〉의 경우 필사본에 〈정각록〉·〈정빈전〉·〈정성모전〉·〈정후비전〉·〈정태비전〉·〈정선매전〉·〈정설매전〉 등 여러 이름이 전하고 있으며, 세책본의 경우 세책본의 공급 및 수요가 거의 끝나가는 1914년이 되어서야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상업세력이 유통을 통하여 보급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영웅소설'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13번부터 31번까지의 작품, 즉 방각본 및 세책본이 발견되지 않은 소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작품들은 유통보다는 비영리적인 성격이 강한 전파에 의해 보급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작품들이다.

우선 이 작품들 중 이후에 활자본으로 출판된 작품이 9편, 활자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작품이 10편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1번부터 12번까지의 연구결과와는 서로 대비가 된다.

방각본 및 세책본이 없으며 활자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업세력의 개입이 미약했다는 뜻이며 이는 유통보다는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13·19·20·22·23·24·28·29·30·31번 작품 10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조직적인 상업세력에 의한 유통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전파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이 보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로 비영리적 성격의 대여와 필사에 의해 전파가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며 조직적인 상업세력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들 작품은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지 못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윤통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소장품으로서 그 역할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

13번 〈유씨삼대록〉의 경우는 상업세력의 개입 없이도 필사를 통해 많은

독자의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28·29·30·31번 작품은 창작되었지만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전파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작품이다.³¹⁾

13번에서 24번 작품까지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남아 있는 필사본의 수량에 비해 複數 題名을 가진 작품이 많다는 것인데, 그 만큼 여러 사람에게 의해 여러 번 필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이다. 21·22·24번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은 특히 두드러진다. 반면에 상업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1번에서 12번까지의 작품들은 발간 횟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3번에서 24번까지의 작품들보다 單數 題名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³²⁾

지금까지 향유층의 한 축인 보급자를 논의에 끌어들여 ‘여성영웅소설’의 보급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업세력이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개입한 여부에 따라 유통과 전파로 구별하고, 이에 따라 분류되는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두 작품군 사이에 조금 다른 특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여성영웅소설’ 향유층 중 다른 축인 작자와 독자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유통 및 전파로 살펴 본 작자와 독자층 推論

지금까지 II 장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보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III 장

31) 28·29·30·31번 작품은 전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 소장용 작품으로 전해지다 발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2) 특히 방각본이 존재하는 1·2·3·4·5·6번 작품의 제명은 단수이거나 많은 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13번 이하 작품들과는 대비가 된다.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廣告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로서는 단수 제명이 작품을 유통시키기에는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7·8번 작품은 필사본의 특성상 제명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보급 현황을 상업세력의 개입 여부에 따라 유통과 전파로 나누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 논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와 작자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즉 보급 형태를 통해 작자와 독자가 누구인지를 유추해 보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먼저 II, III장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범위에서도 나타났지만 '여성영웅소설' 작품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영웅소설'이 안성본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총 31편의 작품 중 방각본 및 세책본 등 상업세력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확인된 작품이 12편에 불과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업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영웅소설'은 그리 매력이 있는 상품은 아니었으며, 독자층 또한 그리 두텁지 못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³³⁾ 물론 〈이대봉전〉, 〈양주봉전〉, 〈백학선전〉, 〈정수정전〉, 〈박씨전〉, 〈현씨양옹쌍린기〉 등을 근거를 들어 상품으로도 뛰어난 작품들이 있었다는 반론을 펼 수는 있겠지만, 이들 작품들이 전체 고전소설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인기도 및 분량으로 볼 때 반론의 근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위의 논의만으로 보았을 때는, '여성영웅소설'의 작자는 추론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독자층을 찾기에 한계가 따른다.

둘째, '여성영웅소설'이 전문적인 낭독자에 의한 낭독이 후대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여성영웅소설'이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을 가능성에 대한 예도 될 수 있지만, '여성영웅소설'의 초기 독자층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전문낭독자를 통한 대리독서를 선호하는 집단이 아닌, 실제 독서를 즐기는 독자층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³⁴⁾

33) 여기에서의 논의는 '여성영웅소설'의 전체 독자층이 두텁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상업세력에 의해 유통되었던 작품수로 유추하여 볼 때, 독자층이 두텁지 못하다는 뜻이다.

셋째, 이원주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독자들은 ‘~傳류 소설을 기피할 뿐이지, ‘여성영웅소설’ 자체를 기피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³⁵⁾

넷째, 상업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여성영웅소설’의 유통 말고도 필사를 통한 ‘여성영웅소설’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필사를 주로 하는 집단은 식자층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여성 양반층, 몰락 양반층, 서리집단이 여기에 해당한다.³⁶⁾

위의 4가지 사실로 추론할 수 있는 결과는 ‘여성영웅소설’의 주된 독자층은 여성 양반층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대봉전>, <양주봉전>, <백학선전>, <정수정전>, <박씨전>과 같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던 소설들의 독자층을 무조건적으로 여성 양반층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31편의 작품을 상업세력의 개입 여부와 함께, 상업세력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시 세분화할 필요를 느꼈다. 즉 Ⅲ장의 논의를 확대하여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상업세력이 적극 주도한 경우,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상업세력이 소극적으로 개입한 경우,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상업세력이 후대에 개입한 경우,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상업세력의 개입이 없는 경우로 분류해 보았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4) 전문적 낭독자에 의한 독서경향은 평민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물론 양반층이나 여성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낭독자에 의한 대리독서도 있었다. 하지만 ‘여성영웅소설’이 대리독서 방법에 의해 보급되었다는 사실은 후대에 와서야 나타난다. 즉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은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제 독서를 통하여 ‘여성영웅소설’을 향유한 집단일 수 있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35) 최근 들어 권미숙, 김재웅의 연구에 의해 ‘여성영웅소설’을 영남내륙의 여성 독자층도 기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36)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1970, p.109.

상업세력의 개입여부와 정도를 통해 살펴본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층

	상업세력 개입 여부	해당 작품	보급층	작자층	독자층	보급 형태	비 고
유형 I	상업세력 주도적 개입	1·2·3·4 5·10·11	상업세력 (출판업자 중심)	영웅소설의 전문작자(남성)	여성 양반층, 남성 평민층	유통 중심	여성과 남성 독자층 혼재
유형 II	상업세력 소극적 개입	7·8·12	상업세력 (전문 필사가), 여성 필사자	알 수 없음 (여성작자 또는 전문 작자)	여성)남성	유통 및 전파	여성 향유층 (보급자, 작자, 독자) 등장 가능성
유형 III	상업세력 후대 개입	6·9·14·15 16·17·18 21·25·26 27	여성 필사자, 상업세력 (후대 출판업자)	여성 양반층일 가능성이 큼	여성 양반층	전과 후 유통 가능성이 큼	여성 향유층이 상업세력을 誘導
유형 IV	상업세력 개입 없음	13·19·20 22·23·24 28·29·30 31	여성 필사자	여성 양반층일 가능성이 큼	여성 양반층	전과 중심	여성중심 전파

우선 유형 I 은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상업세력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경우로 1·2·3·4·5·10·11번 7편의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당시의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의 한 갈래로, 여성주인공이 등장하는 영웅소설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상업세력에 의해 방각본, 세책본 등의 형태로 보급되었다. 상업세력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웅소설의 독자층을 기존 영웅소설의 내용에 식상한 남성 독자와³⁷⁾ 여성의식이 성장하고 있던 여성 양반층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들은 상업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영리적인 성격을 띤 의도적 보급이므로 유통되었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작자는 상업세력이 후원하는 기존의 영웅소설 전문 작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37) 류준경은 여성영웅의 출현은 영웅소설의 장르운동 과정에서 자기 갱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고, 이 경우 여성영웅의 출현은 영웅소설의 매너리즘적 성격 곧 유형성의 탈피와 연관되어서 독자층의 변모보다는 오히려, 상업적, 유형적 성격이 강한 영웅소설의 장르적 성격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성과를 도출했다.

유형 II는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상업세력이 소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인데, 예전부터 읽혀 내려오던 7·8·12번 3편의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리상의 여러 이유로 인해 방각본은 나오지 않았고, 특히 8, 12번 작품은 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세책본 중심으로 읽혀졌던 작품들이다. 주로 상업적 전문 필사가와 여성 필사자에 의해 유통 또는 전파의 형태로 보급되었으리라 생각되는 작품들이다. 독자층은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었으리라 추정하나, 작자층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³⁸⁾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영리적인 성격의 유통과 비영리적인 성격이 강한 전파가 서로 혼용되어 보급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유형 I이 상업세력에 의한 남성 및 상업세력 위주의 유통이었다면 유형 II부터는 보급에 있어 여성들이 단순한 독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작자 또는 보급자로도 그 입지를 조금씩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형 I과 유형 II가 성행했을 당시에는 ‘여성영웅소설’의 독자는 남성 평민층과 여성 양반층 등으로 두터웠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문제로 제기한 당시 인기가 있었던 ‘여성영웅소설’(〈이대봉전〉, 〈양주봉전〉, 〈백학선전〉, 〈정수정전〉, 〈박씨전〉)의 독자층이 여성양반층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유형 III은 상업세력의 개입이 비교적 후대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여기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있어 여성이 상업세력을 압도하거나, 두터운 독자층으로 인해 상업세력을 자신의 의도대로, 誘導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필사에 의한 전파의 형태로 유포되다가, 이 중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이 두터워진 여성독자를 겨냥한 후대 상업세력에 의해 선택되어 활자화되었으리라 생각한다. 6·9·14·15·16·

38) 제명과 소재 등으로 보아 중국소설의 영향을 받은 가문소설의 작자층인 여성 양반층일 가능성이 크며 제작시기도 이른 시기로 추정된다.

17·18·21·25·26·27번 11편의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³⁹⁾

6번 〈홍연전〉의 경우, 경판본이 있다는 증거가 불분명하고 9번 〈정비전〉의 경우, 세책본이 1914년에서야 나왔다는 점에서 유형 III으로 분류했다. 유형 III부터 독자는 여성 양반층으로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작자 또한 상업세력에 의한 전문적 작자로 보기보다는 독자이면서 또한 작자와 보급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여성 양반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⁴⁰⁾ 그 근거로 同種異名の 필사본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작자를 여성 양반층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여성 양반층은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층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상업세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까지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형 IV는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에 있어 상업세력의 개입이 전혀 없는 유형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여성영웅소설'의 보급을 여성세력 단독으로 수행하여 지금까지 전해진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전파를 통해 전해진 작품들로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13·19·20·22·23·24·28·29·30·31번 작품으로 총 10편이 있다. 필사본만이 전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판본이 전혀 없는 작품들로 독자층과 작자, 독자, 보급자, 즉 향유층 모두가 여성 양반층으로 추정된다.⁴¹⁾

39) 여성 향유층에서 전파되다가 후에 활자본으로 다시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들이 활자본 보급 당시 여성독자들의 구미에 가장 맞는 작품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0) 민찬은 〈홍계월전〉 계열의 '여성영웅소설'은 여성 소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강희수는 19세기에 이미 김금원당을 주축으로 하는 여성공동체 '三湖亭詩壇'과 강완숙을 주축으로 천주교공동체 등 여성문인단체가 활동하였다는 근거로 '여성영웅소설'의 작자를 여성 양반층으로 보고 있다.

41) 차옥덕은 〈방한립전〉 작품 전반에 형상화된 여성작 언급을 근거로 〈방한립전〉 후기에 제시된 '민한림 부인 방씨작'이라는 여성작 언급을 근거로 〈방한립전〉은 여성작이며 대표적인 여성주의 문학이라고 보았다. 향유층이 여성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유형 IV가 가장 순정한 형태의 '여성영웅소설'로도 볼 수 있다.

유형 I에서는 여성이 독자로서만 등장하는데, 유형 IV에서는 향유층 전부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비가 된다.

유형 I부터 유형 IV까지 설명하는 동안 보급 방법 및 보급의 주체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위의 유형구분은 시간의 흐름에 의한 통시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유형 I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나왔으며, 유형 IV라고 해서 가장 나중에 나왔으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비슷한 시기에 두 가지 유형 이상이 같이 상존하였을 수도 있으며, 유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형 III에 해당하는 21번 〈이학사전〉과 유형 IV에 해당하는 22번 〈설소저전〉의 창작연대가 유형 I, II가 창작되었으리라 보는 18세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²⁾ 더불어 유형 I과 유형 II의 先後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렇듯 각 유형의 존재시기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는 못했지만, ‘여성영웅소설’의 작자와 독자에 대한 의문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여성영웅소설’의 작자 및 독자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단정 짓는 경우가 있었으나 실제로 ‘여성영웅소설’의 보급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작자와 독자문제가 생각 외로 단순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V. 결론

지금까지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된 31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보급현황과 상업세력의 개입 여부에 따라 비슷한 작품끼리 묶어 작자와 독자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여성

42) 류준경, 앞의 논문, pp.9~11.

영웅소설'의 작자 및 독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존 연구자들이 너무나 쉽게 일정한 계층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특히 향유층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보급자에 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기에, 보급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작자와 독자문제로까지 논의를 확대하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영웅소설'은 상업세력에 의한 유통뿐 아니라 여성에 의한 전파에 의해서도 보급이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둘째,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은 초기에는 남성과 여성 독자층이 혼재했으리라 추정되며, 후대로 갈수록 여성 독자층만이 남았으리라 추정된다.

셋째, '여성영웅소설'의 작자는 기존 영웅소설의 전문 남성 작자뿐 아니라 비전문적 여성 작자도 존재했으리라 추정된다.

넷째, '여성영웅소설'은 상업세력에 의해 유통되다가 여성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여성에 의해 전파되다가 상업세력에 의해 유통되기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소설이 서로 다른 집단의 경쟁적 합작품이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여성영웅소설' 또한 상업세력과 여성 또는 남성과 여성의 경쟁적 합작품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발생하였다.

첫째, '여성영웅소설'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은데서 오는 안타까움이다. '여성영웅소설'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자료의 범위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자료의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 여기에서 오류도 반드시 있으리라 짐이다.

둘째, 借覽, 書僮, 書店 등 상업적인 유통구조를 모두 포괄하여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통형태들이 다 포괄된다면 '여성영웅소설'에 있어 상업세력의 개입 정도를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여성영웅소설'의 전파와 관련된 부분인데,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여성영웅소설’ 필사본의 筆寫記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필사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있어야만 ‘여성영웅소설’의 전파에 대한 정치한 논의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자료로 선정한 작품들에 대한 내적 분석이 없다는 점이다. 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내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위에서 분류한 4가지 유형에 대한 선·후 문제 등 유형분류가 더욱 선명하게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

비록 ‘여성영웅소설’ 향유층에 대한 試論성격의 연구라고, 필자가 처음부터 밝히고 연구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자료의 활용 문제나,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推論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필자의 둔함과 한계를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본 연구를 통해서 학계에서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층 문제에 대하여서도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社, 1991.
- 사재동, 『한국문학유통史의 연구 II』, 중앙인문사, 1999.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대출판부, 1985.
- 유탉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 이상섭, 『문학연구의 방법』, 탐구당, 1995.
- 이상택, 『한국 고전 소설의 이론』, 새문社, 2003.
- 이운석·大谷森繁·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 전용문, 『한국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학교 출판부, 1996.
- 정규복, 『한국고소설史의 연구』, 한국연구원, 1992.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지식산업사, 2001.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 _____, 『고전소설 줄거리집성』 1·2, 2002.
- _____, 『고전소설 연구보정』 1·2, 2006.
- 한국고소설연구회,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 _____,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3.

〈논문〉

- 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 박사학위 논문, 2004.
- 곽정식,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성격과 한계」,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126권, 2000.
- _____, 「정수정전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72호, 2001.
- 권미숙, 「20C 중반 농촌의 고전소설 강독과 수용 양상(-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연세대학교학연구소, 1970.

- 김재웅, 「대구·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전소설의 종류와 독자층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학 연구논총 3집』, 대구경북학연구원, 2006.
- _____,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古小說研究 제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 고소설학회, 2001.
- 민공기, 「영웅소설의 의미체계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5.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박상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부길만, 「안성관·경관·경관 방각본의 비교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11권』, 출판문화학회, 2003.
-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3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 이은경, 「후기 ‘여성영웅소설’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이정원, 「안성관 방각본의 소설 판본」,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임병희, 「‘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양상」,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6.
- 전학용, 「‘여성영웅소설’의 형성동인 및 서사의 특성」,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진단학보 100호』, 진단학회, 2005.
-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학논집 8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0.
- 조은희, 「고전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대 박사학위 논문, 2005.
- 차옥덕, 「방한림전의 여성주의적 시각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최진형, 「규방문화권에서의 고소설 향유 양상」, 『반교어문연구 16집』, 반교어문학회, 2004.

Abstract

Enjoyers of Female Heroic Novels and the Form of Distribution and Spread

Choi, Jae-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njoyers of female heroic novels in association with the distribution and spread of the novels. Earlier studies dealt with the authors and readers of female heroic novels in view of contemporary social aspects, but this study focused on all the people who enjoyed female heroic novels. It's therefore meant to look into not only authors and readers of female heroic novels but distributors to take a new approach toward the novels in consideration of the form of distribution and sprea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female heroic novels might have been distributed by businesses and spread by women at the same time.

Second, the readers of female heroic novels might have included both men and women in the early stage, but the novels might have been read by women only with the lapse of time.

Third, female heroic novels seemed to have been written by amateur female writers as well as professional male authors.

Fourth, female heroic novels might have been distributed by businesses at first and then spread by women, and it's also confirmed that some novels were first spread by women and then distributed by businesse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academic community to pay attention to enjoyers of female heroic novels.

Key Word

female heroic novels, distribution of the novels, spread of the novels, readers of female heroic novels, writers of female heroic novels

- 논문투고일 : 2009.5.22. 심사시작일 : 2009.7.18. 심사완료일 : 2009.8.4.